

2024
고3
3월 학평

2024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 징세비태륙 변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든 신하가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안대후를 추천하거늘 임금 왈,
“안대후는 짐의 수족이니 멀리 보내고자 아니 하노라.”

화신이 나아가 왈,

“신이 비록 지인지감 없사오나 안경은 이름난 선비라, 그런 그가 일찍이 아들들을 벼슬에 추천한 바 있으니, 자식을 아는 데 그 아비만한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어찌 잘못 천거하였겠사옵니까? 이극은 흉악한 도적이야, 위세와 명망 없는 사람을 보내지 못하리니 안대후 외에 적당한 자 없사옵니다.”

임금이 마지못해 명을 내리시니 안대후 명 [A] 을 받들고, 아우 안대순과 함께 가기를 청하니 임금이 놀라,

“형제가 어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리오?”

“신의 형제 성은을 입었사옵에 한번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옵나니 어찌 위험한 지역을 사양하오며, 또한 안대순 아니면 이 일을 감당치 못할까 하여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아우를 데려가려 하나이다.”

임금이 칭찬 왈,

“진실로 충신이로다.”

하시고 황금 삼천냥을 사급하사 즉일 발행하라 하시니, 한림 형제 인하여 하직한 후 집에 돌아와 부친께 편지를 올리고 행장을 차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안대후 형제는 변방 오랑캐를 물리친다. 형제가 명망을 얻자 화신은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로 인해 안대순은 죽고 안대후는 귀양을 가게 된다.

이때 애주 태수 만청길은 화신과 한패라. 화신의 부탁을 들어 안 시랑을 박대함이 심하더니 안 시랑이 여화와 혼인했음을 듣고 화신에게 이를 전하니

화신이 회답하되,

“여화를 가두어 돌을 떨어뜨려라.”

하였거늘, 만청길이 즉시 여화를 잡아들여 왈,

“안대후는 귀양 온 죄인이라. 어찌 첩을 두고 편히 지내리오? 너는 빨리 다른 지아비를 섬기고 안대후를 거절하라.”

여화 왈,

“첩은 안대후 죄상은 모르거니와, 한때만 몸을 허락하고 이제 안대후를 거절하라 하심을 봉승치 못하리소이다.”

만청길 대로하여 형틀에 묶고 때리나, 여화 안색 불변 왈,

“계집이 지아비 섬기는 것은 신하가 임금 섬김과 한가지이거늘, 백성이 지아비를 두 명 섬기지 않는다 하여 이같이 형벌하시니 이웃 나라에 들릴까 두렵습니다. 첩은 금수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태수 대답할 말이 없음에 목에 칼을 씌워 옥에 가두는지라.

한편 안 시랑 풍토의 병이 든 지 이미 반년이라. 여화 극진히 구호하다가 옥중에 갇힌 후로 안 시랑 병세 날로 심하여 다만 죽기를 기다리더라. 일일은 잠깐 조는데 창안학발의 한 노인이 파란 주머니를 들고 들어와 안 시랑더러 왈,

“일시 액화는 사람의 상사거늘 어찌 심려하여 병이 낫는가? 나는 한나라 의원 화타러니, 저세상에서 그대 부친과 친한지라. 부친이 그대 병을 고쳐 달라고 하기에 왔노라.”

하고 파란 주머니에서 환약 다섯 개를 내어 주며 왈,

“이 약을 먹으면 병이 쾌차하리라.”

하거늘 안 시랑이 일어나 절하고 약을 받아먹은 후 다시 일어나 말을 묻고자 할 즈음에 문득 깨달으니 ㉠ **남가일몽**이라. 심히 의괴하나 입에 오히려 약내 나며 정신이 상쾌하여 그날부터 몸이 가벼워 쾌차하리라. 차시 만청길이 파면되어 잡혀가고, 왕정윤이 대신 도임한 후 안대후에게 고향 소식을 전하고 여화를 풀어 주니라.

차설. 정몽렬이 화신의 심복으로 벼슬이 이부 상서에 이르렀나니 일일은 화신더러 왈,

“제가 태자의 기색을 본즉 상공을 부족하게 여기고 안대후 등을 그리워하시니 만일 안대후 돌아오면 상공과 우리 무리 죽을 곳을 모르지라. 먼저 안대후 가족을 다 죽이고 왕정윤에게 서울의 벼슬을 주어 불러올린 후 여통민으로 애주 태수를 시켜 안대후를 죽이면 후환을 가히 면하리라.”

한데, 화신이 깨달아 계약을 행코자 하더니 그의 딸 화 소저가 흥계를 듣고 급히 경몽필에게 밀통하니, 몽필은 화신 몰래 화 소저와 사랑하는 사이라, 몽필이 화 소저의 서간을 보고 누이동생인 부인 경씨를 만나 화신의 행위를 일러 주며 왈,

“내 한 계교 있으니 여차여차하면 시댁의 화를 면하리라.”

하고 돌아가니라.

부인 경씨는 안대순의 아내라, 이 계획을 시어머니에게 전한 후 각각 분산할새, 부인 경씨는 안대후의 부인 엄 씨와 이날 삼경에 길을 떠나 안대후가 귀양 가 있는 애주로 향하는지라. 수사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소상 강변이라. 두 부인과 시비가 길가에 앉아 쉬더니 문득 수풀 속에서 오륙 인이 내달아 시비를 결박하고 두 부인을 죽이려 하였다. 이때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나아와 문 왈,

“두 부인이 애주로 가심을 알거니와 저놈들은 화신 등이 보낸 강도라. 내 사명산에 있더니 운수 선생이 나더러 이 사연을 이르며 가 구하라 하기로 왔노라.”

하고, 강도 등을 꾸짖으니 강도 등이 욕을 하며 달려들거늘 노인이 막대로 한 번 치더니 문득 청천 백일에 뇌정벽력이 진동하며 한 소년이 구름 속에서 내려와 강도 등을 결박하여 언덕 아래 큰 나무에 매고 간 데 없는지라. 그제야 노인이 시비 등을 풀어 주고 문득 간 데 없더라. 두 부인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하고 길을 행하여 수사 만에 애주에 이르니 안 시랑이 대경 대희하여 나와 맞이하는지라.

- 작자 미상, 「징세비태록」

학평 변형 문제

1.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안대후는 임금의 의도를 파악하고 홀로 도적을 막으러 가겠다고 말한다.
- ② 안대후는 화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임금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한다.
- ③ 임금은 화신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안대후를 곤란하게 한다.
- ④ 임금은 안대후의 말을 들은 후 즉일 출발할 것을 명령한다.
- ⑤ 화신은 도적을 막을 사람으로 안경을 추천하고 있다.

학평 변형 문제

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깨어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허망함이 드러난다.
- ② ㉠에서 만난 전란으로 잃어버린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 ③ ㉠으로 인해 갈등이 쉽게 해소된 것에 대한 무상감이 드러난다.
- ④ ㉠에서의 일이 현실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⑤ ㉠에서 느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

학평 변형 문제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고전 소설에서 ‘조력자’는 출신 가문, 능력의 특성, 행위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 ① ‘만청길’은 여화와 안대후를 재회하게 하는 조력자이다.
- ② ‘안 시랑’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화를 옥에서 풀어 준다.
- ③ ‘여통민’과 ‘왕정윤’은 모두 화신의 뜻을 받들어 안대후를 괴롭힌다.

- ④ ‘화 소저’는 자신의 아버지의 흥계를 미리 알려 안대순의 아내가 피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은 우연히 두 부인의 위기를 목격한 후, 두 부인을 돕는다.

학평 변형 문제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징세비태록」에서는 악인이 대리자를 통해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선인을 곤경에 빠뜨림은 물론 궁극적으로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다. 대리자와 가족을 정치적 대립 구도에 포함하여 갈등 상황을 입체화하는 것이다.

- ① 화신은 만청길이라는 대리자를 통해 선인을 곤경에 빠뜨리려 하는군.
- ② 정몽렬은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화신의 대리자이군.
- ③ 화신은 임금을 대리자로 내세워 선인을 간접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군.
- ④ 화신이 두 부인을 위기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은 선인 가문을 몰락시키려는 것이군.
- ⑤ 화신이 만청길, 정몽렬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을 통해 갈등 상황이 입체화되는군.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모든 신하가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안대후를

추천하거늘 임금 왈,

“안대후는 짐의 수족이니 멀리 보내고자 아니 하노라.”

화신이 나아가 왈,

“신이 비록 지인지감 없사오나 안경은 이름난 선비라, 그런 ㉡가 일찍이 아들들을 벼슬에 추천한 바 있으니, 자식을 아는 데 그 아버지만 한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어찌 잘못 천거하였겠사옵니까? 이극은 흉악한 도적이야, 위세와 명망 없는 사람을 보내지 못하리니 ㉢안대후 외에 적당한 자 없사옵니다.”

임금이 마지못해 명을 내리시니 안대후 명을 받들고, 아우 안대순과 함께 가기를 청하니 임금이 놀

라,

“형제가 어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리오?”

“㉣신의 형제 성은을 입었사오며 한번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옵나니 어찌 위험한 지역을 사양하오며, 또한 안대순 아니면 이 일을 감당치 못할까 하여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아우를 데려가려 하나이다.”

임금이 칭찬 왈,

“진실로 ㉤충신이로다.”

하시고 황금 삼천 냥을 사급하사 즉일 발행하라 하시니, ㉬한림 형제 인하여 하직한 후 집에 돌아와 부친께 편지를 올리고 행장을 치렀다.

[중략 부분 줄거리] 안대후 형제는 변방 오랑캐를 물리친다. 형제가 명망을 얻자 화신은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로 인해 안대순은 죽고 안대후는 귀양을 가게 된다.

이때 애주 태수 만청길은 화신과 한패라. 화신의 부탁을 들어 안 사랑을 박대함이 심하더니 안 사랑이 여화와 혼인했음을 듣고 화신에게 이를 전하니 화신이 회답하되,

“여화를 가두어 돌을 떨어뜨려라.”

하였거늘, 만청길이 즉시 여화를 잡아들여 왈,

“안대후는 귀양 온 죄인이라. 어찌 첩을 두고 편히 지내리오? 너는 빨리 다른 지아비를 섬기고 안대후를 거절하라.”

여화 왈,

“첩은 안대후 죄상은 모르거니와, 한때만 몸을 허락하고 이제 안대후를 거절하라 하심을 봉송치 못하리로소이다.”

만청길 대로하여 형틀에 묶고 때리나, 여화 안색 불변 왈,

“계집이 지아비 섬기는 것은 신하가 임금 섬김과 한가지이거늘, 백성이 지아비를 두 명 섬기지 않는다 하여 이같이 형벌하시니 이웃 나라에 들릴까 두렵습니다. 첩은 금수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아니하나이다.”

㉦태수 대답할 말이 없음에 목에 칼을 씌워 옥에 가두는지라.

한편 ㉧안 사랑 풍토의 병이 든 지 이미 반년이래. 여화 극진히 구호하다가 옥중에 갇힌 후로 안 사랑 병세 날로 심하여 다만 죽기를 기다리더라. 일

일은 잠깐 조는데 창안학발의 한 노인이 파란 주머니를 들고 들어와 안 사랑더러 왈,

“일시 액화는 사람의 상사거늘 어찌 심려하여 병이 났는가? 나는 한나라 의원 화타러니, 저세상에서 그대 부친과 친한지라. 부친이 그대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에 왔노라.”

하고 파란 주머니에서 환약 다섯 개를 내어 주며 왈,

“이 약을 먹으면 병이 쾌차하리라.”

하거늘 안 사랑이 일어나 절하고 약을 받아먹은 후 다시 일어나 말을 묻고자 할 즈음에 문득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심히 의괴하나 입에 오히려 약내 나며 정신이 상쾌하여 그날부터 몸이 가벼워 쾌차하니라.** 차시 만창길이가 파면되어 잡혀가고, 왕정윤이 대신 도입한 후 안대후에게 고향 소식을 전하고 여화를 풀어 주니라.

차설. 정몽렬이 화신의 심복으로 벼슬이 이부 상서에 이르렀나니 일일은 화신더러 왈,

“제가 태자의 기색을 본즉 상공을 부족하게 여기고 안대후 등을 그리워하시니 만일 안대후 돌아오면 상공과 우리 무리 죽을 곳을 모를지라. 먼저 안대후 가족을 다 죽이고 왕정윤에게 서울의 벼슬을 주어 불러올린 후 여통민으로 애주 태수를 시켜 안대후를 죽이면 후환을 가히 면하리라.”

한데, 화신이 깨달아 계락을 행코자 하더니 그의 딸 화 소저가 흥계를 듣고 급히 경몽필에게 밀통하니, 몽필은 화신 몰래 화 소저와 사랑하는 사이라, 몽필이 화 소저의 서간을 보고 누이동생인 부인 경씨를 만나 화신의 행위를 알려 주며 왈,

“내 한 계교 있으니 여차여차하면 시댁의 화를 면하리라.”

하고 돌아가니라.

부인 경 씨는 안대순의 아내라, 이 계획을 시어머니에게 전한 후 각각 분산할새, 부인 경 씨는 안대후의 부인 엄 씨와 이날 삼경에 길을 떠나 안대후가 귀양 가 있는 애주로 향하는지라. **㉡수삭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소상 강변이라.** 두 부인과 시비가 길가에 앉아 쉬더니 문득 수풀 속에서 오륙인이 내달아 시비를 결박하고 두 부인을 죽이려 하였다. 이때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나아와 문 왈,

“두 부인이 애주로 가심을 알거니와 저놈들은 화신 등이 보낸 강도라. 내 사명산에 있더니 운수 선생이 나더러 이 사연을 이르며 가 구하라 하기로 왔

노라.”

하고, 강도 등을 꾸짖으니 강도 등이 욕을 하며 달려들거늘 노인이 막대로 한 번 치더니 문득 청천백일에 뇌정벽력이 진동하며 한 소년이 구름 속에서 내려와 강도 등을 결박하여 언덕 아래 큰 나무에 매고 간 데 없는지라. 그제야 노인이 시비 등을 풀어 주고 문득 간 데 없더라. 두 부인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하고 길을 행하여 수삭 만에 애주에 이르니 안 사랑이 대경 대희하여 나와 맞이하는지라.

- 작자 미상, 「징세비태록」

5. ㉠~㉡ 중 지시하는 인물이 다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6. 다음 중 화자의 태도가 [A]에 드러난 ‘여화’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전원(田園)에 나쁜 흥(興)을 전나귀에 모도 짓고 계산(鷄山) 니근 길로 흥치며 도라와서 아히 금서(琴書)를 다스려라 나쁜 희를 보내리라
- ②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헛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헛는 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싸해 낫드니
- ③ 말 업슨 청산(靑山)이요, 태(態) 업슨 유수(流水) | 로다 감 업슨 청풍(淸風)이요, 님조 업슨 명월(明月)이라 이 중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업시 늙으리라
- ④ 가노라 삼각산(三角山)아, 다시 보자 한강수(漢江水)아 고국산천(古國山川)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時節)이 하 수상(殊常)하니 올동 말동 헛

여라

- ⑤ 선인교(仙人橋) 나린 물이 자하동(紫霞洞)에 흘러 내려
반천년(半千年) 왕업(王業)이 물소리뿐이로다
아희야, 고국 흥망(古國興亡)을 무려 무엇하리오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변방의 오랑캐로 인해 안대순이 죽은 것은 화신의 계략으로 인한 것이다.
② 안 시랑은 만청길에 맞서 안대후와 여화를 돕는 인물이다.
③ 왕정윤과 정몽렬은 모두 화신의 대리인으로 안대후를 꾀박한다.
④ 운수 선생은 안대후의 가족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물이다.
⑤ 경몽필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화신의 뜻을 따르는 인물이다.

8. ㉠~㉣ 중, 전기적 요소가 드러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든 신하가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안대후를 추천하거늘 임금 왈,
“안대후는 짐의 수족이니 멀리 보내고자 아니 하노라.”
화신이 나아가 왈,
“신이 비록 지인지감 없사오나 안경은 이름난 선비라, 그런 그가 일찍이 아들들을 벼슬에 추천한 바 있으니, 자식을 아는 데 그 아버지만 한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어찌 잘못 천거하였겠습니까? 이극은 흉악한 도적이라, 위세와 명망 없는 사람을 보내지 못하리니 안대후 외에 적당한 자 없사옵니다.”
임금이 마지못해 명을 내리시니 안대후 명을 받들고, 아우 안대순과 함께 가기를 청하니 임금이 놀라,

“형제가 어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리오?”

㉠ “신의 형제 성은을 입었사옵에 한번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옵나니 어찌 위험한 지역을 사양하오며, 또한 안대순 아니면 이 일을 감당치 못할까 하여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아우를 데려가려 하나이다.”

임금이 칭찬 왈,
“진실로 충신이로다.”

하시고 황금 삼천 냇을 사급하사 즉일 발행하라 하시니, 한림 형제 인하여 하직한 후 집에 돌아와 부친께 편지를 올리고 행장을 차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안대후 형제는 변방 오랑캐를 물리친다. 형제가 명망을 얻자 화신은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로 인해 안대순은 죽고 안대후는 귀양을 가게 된다.

이때 애주 태수 만청길은 화신과 한패라. 화신의 부탁을 들어 안 시랑을 박대함이 심하더니 안 시랑이 여화와 혼인했음을 듣고 화신에게 이를 전하니 화신이 회답하되,

“여화를 가두어 돌을 떨어뜨려라.”

하였거늘, 만청길이 즉시 여화를 잡아들여 왈,
“안대후는 귀양 온 죄인이라. 어찌 첩을 두고 편히 지내리오? 너는 빨리 다른 지아비를 섬기고 안대후를 거절하라.”

여화 왈,

“첩은 안대후 죄상은 모르거니와, 한때만 몸을 허락하고 이제 안대후를 거절하라 하심을 봉송치 못하리로소이다.”

만청길 대로하여 형틀에 묶고 때리나, 여화 안색 불변 왈,

“계집이 지아비 섬기는 것은 신하가 임금 섬김과 한가지이거늘, 백성이 지아비를 두 명 섬기지 않는다 하여 이같이 형벌하시니 이웃 나라에 들릴까 두렵습니다. 첩은 금수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태수 대답할 말이 없음에 목에 칼을 씌워 옥에 가두는지라.

한편 안 시랑 풍토의 병이 든 지 이미 반년이라. 여화 극진히 구호하다가 옥중에 갇힌 후로 안 시랑 병세 날로 심하여 다만 죽기를 기다리더라. 일일은 잠깐 조는데 창안학발의 한 노인이 파란 주머니를

들고 들어와 안 사랑더러 왈,

“일시 액화는 사람의 상사거늘 어찌 심려하여 병이 났는가? 나는 한나라 의원 화타러니, 저세상에서 그대 부친과 친한지라. 부친이 그대 병을 고쳐 달라고 하기에 왔노라.”

하고 파란 주머니에서 환약 다섯 개를 내어 주며 왈,

“이 약을 먹으면 병이 쾌차하리라.”

하거늘 안 사랑이 일어나 절하고 약을 받아먹은 후 다시 일어나 말을 묻고자 할 즈음에 문득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심히 의괴하나 입에 오히려 약내 나며 정신이 상쾌하여 그날부터 몸이 가벼워 쾌차하니라. 차시 만청길이 파면되어 잡혀가고, 왕정운이 대신 도입한 후 안대후에게 고향 소식을 전하고 여화를 풀어 주니라.

㉠ **차설**. 정몽렬이 화신의 심복으로 벼슬이 이부상서에 이르렀나니 일일은 화신더러 왈,

“제가 태자의 기색을 본즉 상공을 부족하게 여기고 안대후 등을 그리워하시니 만일 안대후 돌아오면 상공과 우리 무리 죽을 곳을 모를지라. 먼저 안대후 가족을 다 죽이고 왕정운에게 서울의 벼슬을 주어 불러올린 후 여통민으로 애주 태수를 시켜 안대후를 죽이면 후환을 가히 면하리라.”

한데, 화신이 깨달아 계획을 행코자 하더니 그의 딸 화 소저가 흥계를 듣고 급히 경몽필에게 밀통하니, 몽필은 화신 몰래 화 소저와 사랑하는 사이라, 몽필이 화 소저의 서간을 보고 누이동생인 부인 경씨를 만나 화신의 행위를 알려 주며 왈,

“내 한 계교 있으니 여차여차하면 시택의 화를 면하리라.”

하고 돌아가니라.

부인 경씨는 안대순의 아내라, 이 계획을 시어머니에게 전한 후 각각 분산할새, 부인 경씨는 안대후의 부인 엄 씨와 이날 삼경에 길을 떠나 안대후가 귀양 가 있는 애주로 향하는지라. 수삭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소상 강변이라. 두 부인과 시비가 길가에 앉아 쉬더니 문득 수풀 속에서 오록 인이 내달아 시비를 결박하고 두 부인을 죽이려 하였다. 이때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나아와 문 왈,

“두 부인이 애주로 가심을 알거니와 저놈들은 화신 등이 보낸 강도라. 내 사명산에 있더니 운수 선생이 나더러 이 사연을 이르며 가 구하라 하기로 왔노라.”

하고, 강도 등을 꾸짖으니 강도 등이 욕을 하며 달려들거늘 노인이 막대로 한 번 치더니 문득 청천 백일에 뇌정벽력이 진동하며 한 소년이 구름 속에서 내려와 강도 등을 결박하여 언덕 아래 큰 나무에 매고 간 데 없는지라. 그제야 노인이 시비 등을 풀어 주고 문득 간 데 없더라. 두 부인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하고 길을 행하여 수삭 만에 애주에 이르니 안 사랑이 대경 대희하여 나와 맞이하는지라.

- 작자 미상, 「징세비태록」

9. ㉠에 드러난 안대후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기>

㉠ **어리고 우활(迂闊)호산 이니 우히 더니 업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늘과 부처 두고, 누항(陋巷) 김푼 곳의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답히 섭히 되야, 셔 흙 밥 닷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 **설 데인 숙냉(熟冷)애 빈 배 석일 썬이로다.** 생애 이러하다 장부(丈夫) 뜻을 움길년가. 안빈 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셔, 수의(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 조차 저어(齟齬)하다.

㉢ **7올히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뷔엿거든 병(瓶)의라 담겨시라. 빈곤(貧困)흔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썬이라.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년가.

㉣ **분의망신(奮義忘身)하야 죽어야 말녀 너겨,** 우탁우랑(于囊于囊)의 줌뽀이 모아 녀코, 병과(兵戈) 오재(五載)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셔, 이시섭혈(履尸涉血)하야 몇 백전(百戰)을 지 닉연고.

일신(一身)이 여가(餘暇) 잇사 일가(一家)를

도라보라.

일노장수(一奴長鬚)는 노주분(奴主分)을 이
졌거든,

고여춘급(告余春及)을 어니 사이 생각허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놀드려 물물논고.

㉔ **궁경가색(躬耕稼穡)이 닢 분(分)인 줄 알리
로다.**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隴上耕翁)을
천(賤)타 허리 업것마는,

아므려 갈고전돌 어니 쇼로 갈로손고.

- 박인로, 「누항사」에서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10.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
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
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
하였다.

“호귀야, 나를 죽여 삼켜 버려라. 차라리 죽
어 승냥이와 이리의 배 속에 들어갈지언정 어
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이고 난자질하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전
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
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 통에 불타 버린 후였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에서

- ① 윗글과 달리 <보기>는 주인공의 가족들이 위기
에 처한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 ② 윗글과 달리 <보기>에는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여인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
다.

- ③ <보기>와 달리 윗글은 주인공의 능력으로 오랑
캐(도적)를 물리친다.
- ④ <보기>와 달리 윗글은 주인공의 아내가 끝내
죽음을 맞게 된다.
- ⑤ 윗글과 <보기>는 모두 특정 인물의 흥계로 인
한 주인공의 고난이 제시되어 있다.

11. 윗글에서 ㉔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의 갈등이 모두 종식되었음을 드러낸다.
- ② 기존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다른 사건으로 전
환한다.
- ③ 서술자가 교체되었음을 알려 준다.
- ④ 편집자적 논평이 활용된 부분임을 드러낸다.
- ⑤ 작가와 독자가 직접 대화를 나누는 부분임을 드
러낸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임금은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아우와 함께 가겠다는 안대후의 말을 듣고 황금 삼천 냥을 사급하며 즉 일 발행하라고 명하고 있다.

① 안대후는 임금이 마지못해 명을 내린 후 아우 안대순과 함께 가기를 청하고 있다.

② 안대후는 화신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지 않으며, 임금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③ ‘안대후는 짐의 수족이니 멀리 보내고자 아니 하노라.’라는 임금의 말을 통해 자신의 곁에서 안대후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화신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A]에서 곤란해하는 안대후의 모습도 확인할 수 없다.

⑤ 화신은 안경이 과거 자신의 아들을 벼슬에 추천했던 것을 근거로 들며 도적을 막을 사람으로 안대후를 추천하고 있다.

2. 정답 ④

풍토의 병에 걸린 안대후는 꿈에 노인이 나타나 약을 주자 그것을 먹고, 꿈에서 깨어난 뒤 쾌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에서의 일이 현실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⑤ ㉠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허망함이나 혈육에 대한 그리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으로 인해 갈등이 쉽게 해소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에서 안대후는 한 노인을 만나 약을 받아먹고 있을 뿐, 고통을 겪지 않았으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지도 않는다.

3. 정답 ④

정몽렬과 화신이 안대후를 죽이려는 흥계를 꾸미자 이를 들은 화 소저가 경몽필에게 밀통하고, 경몽필은 누이 동생인 부인 경 씨에게 화신의 흥계를 알린다. 이로 인해 경 씨와 엄 씨는 화신의 흥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① ‘만청길’은 화신과 한패인 반동인물로, 여화와

안대후를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인물이다.

② ‘여화’를 옥에서 풀어 주는 것은 만청길 대신 도입한 왕정윤이다.

③ ‘왕정윤’은 만청길 대신 도입한 후 안대후에게 고향 소식을 전하고 여화를 풀어 주는 인물로, 화신이 안대후를 죽이기 위해 서울에 벼슬을 주어 불러올리려고 하는 인물이다.

⑤ ‘내 사망산에 있더니 ~ 구하라 하기로 왔노라.’라는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의 말을 통해 노인은 두 부인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정답 ③

임금은 이극을 막기 위해 안대후를 추천하는 화신과 신하들에게 ‘안대후는 짐의 수족이니 멀리 보내고자 아니 하노라.’라고 말했으며, 결국 마지못해 명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임금이 화신의 대리자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① 화신은 애주 태수 만청길을 통해 안 사랑을 박대하고, 안 사랑과 혼인한 여화를 옥에 가둔다.

② 정몽렬은 화신에게 ‘안대후 가족을 다 죽이’자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몽렬은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하려는 화신의 대리자라고 볼 수 있다.

④ 정몽렬과 화신은 안대후의 가족을 다 죽인 후 애주 태수를 시켜 안대후를 죽이자는 흥계를 꾸민다. 즉 두 사람이 두 부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선인인 안대후의 가문을 몰락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⑤ 만청길, 정몽렬은 모두 화신의 대리자로 안대후와 그의 가족들을 핍박하는 부정적 인물들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은 대리자와 가족을 정치적 대립 구도에 포함하여 갈등 상황을 입체화하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한 설명이다.

5. 정답 ①

㉠은 안대후와 안대순의 아버지인 안경이고, ㉡~㉣은 모두 안대후를 지시하는 표현이다.

6. 정답 ②

[A]에서는 만청길의 협박에 저항하며 안대후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여화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고, ②의 화자는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며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전원에서의 풍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 ③ 자연에서 늙고 싶다는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 ④ 고국을 떠나며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한탄하는 작품이다.
- ⑤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7. **정답** ④

‘두 부인이 애주로 ~ 구하라 하기로 왔노라.’라는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의 말을 통해 ‘운수 선생’이 안대후 가족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임을 알 수 있다.

- ① 안대후 형제는 변방 오랑캐를 물리치고 명망을 얻으며, 안대순이 죽은 것은 화신이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 ② 안 시랑은 안대후이므로, 안대후와 여화를 돕는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정몽렬은 화신의 대리인으로 안대후를 핍박하는 인물이지만, 왕정윤은 안대후에게 고향 소식을 전하고 여화를 풀어 주는 인물이다.
- ⑤ 경몽필은 화 소저의 말을 들은 후, 동생인 부인 경 씨를 만나 화신의 행위를 일러 주는 인물이므로 화신의 뜻을 따른다고 볼 수는 없다.

8. **정답** ④

㉠은 풍토의 병에 걸린 안대후가 꿈속에서 노인에게 받아먹은 약의 효과가 현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므로 비현실적, 전기적 요소가 활용된 부분이다.

- ①, ②, ③, ⑤ ㉠, ㉡, ㉢, ㉣은 전기적 요소가 활용되지 않았다.

9. **정답** ④

㉠에서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는 안대후의 태도가 드러나 있고, ㉡는 자신의 몸을 바쳐 올바른 뜻을 다하겠다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 부분이다.

- ① 자신의 ‘우월’함을 한탄하고 있는 부분으로 ㉠에 드러난 안대후의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 ②, ③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부분

으로 ㉠에 드러난 안대후의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⑤ 가난한 처지를 자신의 분수로 받아들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부분으로 ㉠에 드러난 안대후의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10. **정답** ③

도적을 피해 달아나기만 하는 <보기>의 주인공 ‘이생’과 달리 윗글의 주인공 안대후는 자신의 능력으로 변방 오랑캐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인다.

- ① 윗글에는 안대후의 부인 엄 씨와 안대순의 아내 부인 경 씨 등, 안대후의 가족들이 위기에 처한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 ② 윗글의 여화는 만청길의 협박에 맞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윗글의 여화와 두 부인은 화신으로 인해 고난을 겪지만,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와 달리 <보기>의 ‘최 씨’는 도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 ⑤ 윗글은 ‘화신’의 흥계로 인한 주인공의 고난이 제시되어 있으나, <보기>는 전쟁(흥건적의 난)으로 인한 주인공의 고난이 제시되어 있을 뿐, 특정 인물의 흥계로 인한 고난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